

코스피	2520.36	코스닥	693.15
	(-13.98)		(-3.68)
금리 (미국 9년)	2.773	환율 (원-달러)	1399.75
	(0.000)		(-2.45)

“코스피 상장이요? 나스닥 갑니다”... IPO도 국내 외면

(기업공개)

국내 유망 기업들, 미국 증시 노크
비바리퍼블리카, 나스닥 IPO 추진
셀트리온홀딩스·야놀자 등도 준비

최근 국내 증권시장 대신 미국증시(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이탈과 함께 유망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행렬이 국내 증시의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최근 나스닥 IPO를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을 상대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쿠팡(뉴욕증권거래소)’, ‘네이버 웹툰(나스닥)’의 상장 이후 최근들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토스 외에도 ▲셀트리온홀딩스 ▲오에스알홀딩스 ▲야놀자 등이 나스닥 입성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한국 증시의 자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내 한 증권사의 IPO를 주관하는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토스가 미국 증시 입성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국내에서는 10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증권학회 회장)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은 수익에 비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주는 시장”이라며 “최근 한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미국 증시 진출로 눈을 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이 교수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자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금 조달 사정이 좀 더 나은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 증시 상장 자체가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라고도 봤다. 미국 상장의 장점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유동성에 따른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점과, 기업 가치 상승 및 인지도 증가, 글로벌 홍보 효과 등을 꼽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상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 과정 자체가 ‘혼란기’에 있다”며 “국내 IPO 시장 침체는 아무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주관사가 기업평가를 적절히 잘 해내도 상장 당시 시장상황에 주가 움직임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관사가 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최적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있어도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중부세 납부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중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전 보다 소폭 상승했다. <관련기사 4면> /뉴스IS

‘트럼프시대’ 韓경제 파장

美, 멕시코·加 25% 관세... 韓 산업계 타격

트럼프 고율 관세정책 부담 확산
현대차, 멕시코 생산수 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의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피해가며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뉴스IS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타닐 문제로 해당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갈등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업계의 부담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LCD와 LED 등을, LG전자는 TV와 냉장고, 오븐 등을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기아와 포스코 등도 자동차와 철강재를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비스 등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생산 공장도 멕시코에 위치해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대규모 수출하는 만큼 관세 면제 혜택을 폐기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관세 적용 규모 등을 보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플랜트 캐파 증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증산을 통해 방어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는 중국 내 IT 기업들이 관세폭탄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시장 수요 부진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김서현·차현정·이혜민 기자 ysw@

불확실성 우려에 소비자심리도 뚝

11월 CCSI, 전월비 1.0%p 하락
향후경기전망 1년 만에 최저 수준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달 전과 비교해 1.0%포인트(p)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10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4)이 7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경기판단(70--3p)과 생활형편

전망(94--2p)도 전월보다 내렸다.

반면 현재생활형편(91)과 가계수입전망(100)은 각각 1p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109)은 전월과 같았다.

이달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줄었다.

주택가격지수는 109로 한달 전(116)과 비교해 7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앞으로 1년 뒤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것으로 100보다 낮은 것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조사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 가격상승세가 둔화해 주택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향후 1년 간의 물가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한달 전과 같았다. 소비자물가상승세가 둔화했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탓이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0.1%p 하락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2.6%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한동훈 겨냥 “내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셔야” /사진 뉴스IS
▲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젠더나 세대 갈등 문제 아냐”

▲ 홍준표 “판사에 목맨 검사 정치 그만... 트럼프 보면 답 나와”
▲ 민주, 김건희 특검 재의 요구 “이승만 전철 밟을건가”



▲ 추경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사진 뉴스IS
▲ 개혁신당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에 책임져야”

10만전자 ‘반토막’... “일부 임원에 퇴임통보” 쇠신 나선다

삼성전자, 이르면 오늘 정기인사

DS실적 부진, 대대적인 개편 예상
사장단 인사 후 임원인사 등 단행
노태문·박학규 향후 행보에 관심

삼성전자가 이르면 27일부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개적으로 위기 극복을 다짐한 만큼 대대적인 쇠신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겨울’을 맞은 반도체(DS) 부문은 사장급 사업부장 다수가 교체되는 등 신상필벌 인사가 나올 것이란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 인사를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길 전망이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반도체 사업을 DS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는 통상 인사 명단을 12월 첫째 주에 발표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1월 마지막 주로 인사 시기를 소폭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3분기 반도체(DS) 실적이 크게 부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쇠신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27일 사장단 인사를 한 뒤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86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며 ‘10만전자’를 앞둔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다. 결국 내외부 안팎에서 삼성전자의 조직 쇠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인사를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정기인사다. 앞서 전 부회장은 반성문을 내놓으며 조직 쇠신을 시사했다. 그는 삼성 위기 진단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근원

적 기술 경쟁력 회복, 미래 준비, 조직 문화 재건”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원 인사 폭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장단 이사가 총 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호황에도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낸 만큼 사업부장(사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노태문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과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 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이동 가능성을 비롯해 남석우 제조&기술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등의 중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중희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의 ‘투톱’ 체제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정현호 부회장이 이끄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회장은 조직쇄신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전날 열린 제일모직-삼성

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며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전원 물갈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적 쇠신은 자칫 위기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중희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의 ‘투톱’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어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지원금 상의금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실적을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보호연도> 노란우산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계좌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예금인기(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국내서만 278조 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

공정위,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
대기업 매출 감소에 비중 증가
국내외계열사 내부거래 704조

지난해 대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한국엔컴퍼니그룹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 현대자동차 순으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 총수 2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1년간 내부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9조원),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5조원)이다.

전년 대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체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2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1개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4.8조원)과 매출액(1343.2조원)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을 상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엔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201.1조원), 현대자동차(157.9조원), SK(103.6조원), LG(57.2조원), 포스코(42.1조원)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가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인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나 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익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급변하는 中 스마트폰 시장... 짐사는 삼성, 현장 찾는 애플

화웨이, 자체 OS 기반 시장 장악
삼성, 베트남·인도 생산공장 이전
애플 팀쿡 CEO, 올해 中 세번 방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웠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독자 생존에 본격 나서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자체 OS인 하모니OS 넥스트를 개발했다. 특히 화웨이가 새로 출시하는 메이트70에도 이 OS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전자는 물론 애플까지 외국계 스마트폰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삼성 전자는 이미 중국 공장을 철수한 한편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은 올해 들어 중국만 세번 방문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26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비보(18.6%), 2위는 애플(15.6%), 3위는 화웨이(15.3%)가 차지했다. 화웨이는 자국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률을 보이며 애플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시장 내 삼성전자 점유율은 1%를 밑돌며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한 상태다. 2019년 중국 마지



지난 3월 상하이 신규 플래그십 애플스토어 오픈식에 참석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뉴시스

막 스마트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닫았다. 한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였지만 점유율이 1%를 밑돌자 휴대전화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을 이전했다.

특히 한 때 중국시장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최근 점유율이 크게 밀리자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쿡 CE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국제무역촉진협의회(CCPIT)가 개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진흥박람회' 개막에 앞서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는 런훙빈 국제무역촉진협의회 회장과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그는 올 3월과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중국을 찾았다. 쿡 CEO는 이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애플의 중국 파트너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쿡 CEO의 방중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와중에도 중국 시장이 애플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 본토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풀이했다.

반면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토종 OS를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이날(현지시간) 화웨이는 메이트 70

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개한 메이트 60의 후속 모델로, 자체 OS인 하모니 넥스트와 자체 개발한 첨단 반도체 칩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 미국의 강력한 대중 제재의 영향으로 5G 스마트폰용 반도체 확보, 안드로이드 OS 접근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자체 OS의 생태계를 크게 키운다는 목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하모니 OS는 지난 1분기 중국에서 점유율 17%를 차지하며 애플의 iOS(16%)를 제쳤다. 현재 1위는 구글 안드로이드(68%)다.

화웨이는 지난해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내에서 자체제작한 7nm(나노미터) 공정의 5G 칩 '기린 9000s'를 탑재하면서 부활에 나섰다. 이번 메이트 70에도 자체 개발한 6nm 칩인 '기린 9100'이 탑재된다. CPU(중앙처리장치)와 GPT(그래픽처리장치) 성능 모두 기린 9000s보다 한층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미국 제재의 영향이 남아있어 고급 반도체 노드 사용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퀄컴 등의 최신 칩보다는 성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OS의 경우에도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 이후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OS인 '하모니 OS'를 개발해 활용해 왔다. 공식 안드로이드 OS는 아니지만

구글이 배포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했기에 기존 안드로이드 앱들과 호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모니 OS의 5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등장해 메이트 70에 최초 적용되는 하모니 넥스트는 안드로이드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로 개발됐다. 하모니 넥스트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다.

즉 화웨이가 애플 iOS처럼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앱들이 안드로이드 버전, iOS 버전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하모니 넥스트도 별도로 최적화된 앱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화웨이는 메이트 70 공식 출시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공식 출시 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전 예약자 수는 약 323만명으로 집계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화웨이 메이트 70. /화웨이 홈페이지 캡처

>> 1면 '트럼프시대 韓 경제...'서 계속

롯데그룹, 바이오분야 9000억 투입... 신성장동력 찾는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자금보충약정
공장인수·시설확충 '투 트랙 전략'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약정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대출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거래 내용은 롯데지주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대주단의 대출 계약상 채무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9000억원을 빌렸다. 이번 자금보충약정 금액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월드타워 전경

의 대출 원금 9000억원과 이자, 수수료, 기타 금융비용 등 대출 계약상 채무 전체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일부터 자금

보충약정 거래 시작되며 거래 종료일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대출 채무 상환 완료일인 오는 2031년 11월 28일이다. 총 거래 규모는 자금보충약정 수수료 283억1000만원으로, 거래 기간 동안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부터 분할해서 받는다.

이번 자금보충약정뿐 아니라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직접 투자하며 바이오 사업에 주력해 왔다.

롯데지주는 앞서 올해 6월에는 1200억원 규모 출자를 단행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지분 80%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에는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820억원 수준의 투자도 집행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일찍이 '바이오엔젤릭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등을 주제로 신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엔젤릭스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디자인으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이했고 공장 인수와 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갖춘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 사업 초기이며, 오는 2025년부터 생산 시설이 추가적으로 가동되면 미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산업계, 관세 대응 총력 매출 등 경영부담 최소화

A업체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D램/NAND플래시) 등의 수요 부진에 따른 시세 불안정으로 악성재고화 될 수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매출 하락은 물론 재고보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과 석화업계의 경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물량에 정체가 발생하면서 아시아 철강시장에 풍선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국 철강 물량이 다른 지역으로 선회하면서 그로 인해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화업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석화업계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중국의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IT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이와 연계된 국내 기업 모두에게 영향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국산 부품과 소재 사용하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김서현·차현정·이혜민 기자 ysw@

3분기 카드 해외사용 57억달러 '사상 최대'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 영향

올해 3분기(7~9월) 내국인이 사용한 카드 해외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감소했지만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출국자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3분기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해외사용금액은 57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51억85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1% 증가한 수준이다.

카드해외 사용실적이 증가한 이유

는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717만 3000명으로 전분기(698만8000명)와 비교해 8.7% 늘었다.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2분기 14억7000만 달러에서 3분기 14억1000만달러로 4.4% 줄었다.

사용하는 카드 수도 증가했다. 2분기에는 1753만7000장이 사용됐지만 3분

기에는 1854만5000장이 쓰였다. 5.8% 늘어난 수치다.

카드별로는 신용카드 선호도가 높았다. 3분기 신용카드 금액은 39억 4000만달러로 전체 사용금액중 6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3분기 해외에서 카드 한 장당 사용한 금액은 308달러로 2분기 296달러보다 4.1%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비대면 금융 확산·비용 부담... 은행권, '점포 통폐합' 가속

최근 5년간 은행 점포 20% 감소
고령·취약계층 접근성 저하 우려
“금융소비자, 금융거래 환경 악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점포 폐쇄 내실화 대책을 내놓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올해 통폐합 점포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 21 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지점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해 가산디지털밸리지점, 구로디지털지점, 금남로지점, 대전무역회관지점, 대치남지점, 도곡스위트지점, 독립문지점, 반포서래지점, 여의도북지점, 용산역지점, 포이동지점, 학동역지점 등이 문을 닫고 인근 지



26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시장에서 정태욱 한국전자금융 상무(왼쪽부터), 장영배 청도군청 경제과장, 김경권 청도시장 상인회 감사, 이인규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은행 공동ATM 운영개시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점으로 흡수된다. 우리은행은 올해만 36개 점포를 폐쇄한 바 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전국 영업점을 대규모로 통폐합한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총 38개 영업점(출장소 4개 포함)을 폐쇄하고 인근 영업점과 합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

울은 청계·사당동·위례중앙·한남동·노원역·개롱역지점·북아현출장소 등 8개 지점이 통폐합된다. 이어 경기 지역은 천신흥·죽전보정·가능역·남천·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광고금융센터 등 6곳이 사라질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전라북도 전주

태평동 지점과 경기도 수원 권선동 지점을 없애 인근 점포와 합쳤다. 올해에만 40곳의 지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올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점포를 폐쇄했던 우리은행(36개)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신한은행 역시 다음 달 8개 점포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총 17개 점포를 통합하면서 올해만 25곳이 문을 닫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현재 5690개로 5년간 1189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수도권에서 708개, 비수도권에서 481개가 사라졌다.

전체 폐쇄 점포의 69%는 4대 은행 점포로, 점포 폐쇄 비율은 KB국민은행이 26.3%, 우리은행이 24%, 신한은행이 22.9%, 하나은행이 18.8%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비용 문제 때문이다. 코로

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영업점의 관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분담 원칙 등에 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물리적인 점포 등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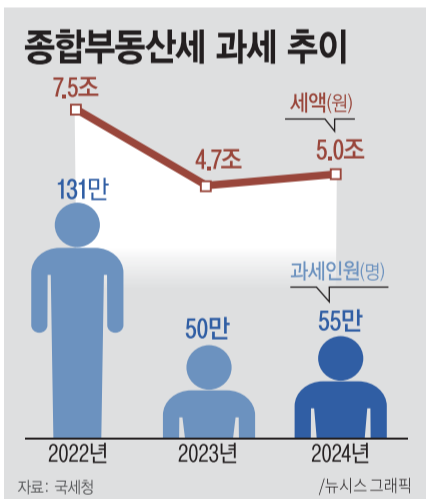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올해 종부세 납세자·세액 동반 상승... 공시가 인상 여파

기재부·국세청
납세자 55만명 납부기한 내달 16일
다주택자 4655억, 1주택자 1168억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인원이 모두 전년에 비해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중복 제외 시 54만 8000명(주택분 46만 명·토지분 11만 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만 2000명)와 비교해 12.9%(+3만 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000명으로, 작년(11만 1000명) 대비 15.5%(+1만 7000명) 늘

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작년 4000억 원보다 22.8%(+865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 원으로 작년 905억 원 대비 29.1%(+263억 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난해와 올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원과 세액의 동시 증가는 지

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종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4만 8000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 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 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

왜 경기도는 이렇게나 기회소득에 진심일까요?

우리 사회의 각 분야마다
가치있는 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으면
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가치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경기도 기회소득 지금 신청하세요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오늘은 뭐 입지?

점심 메뉴는?

회의 준비는 했나?

노후 계획까지..?

고민도 할 일도 많은 당신을 위해
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기업을 아는 만큼 직장인도 잘 아는
IBK기업은행이니까

쉽게 시작하는 IBK IRP



직장인을 잘 아는 기업은행의 IRP!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국책은행의
안정적인 연금운용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한 국책은행

디지털 테크를 활용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

시장 상황과 고객 성향에 맞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추천·관리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285호(2024.10.25) 유효기간(2025.10.23)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개인형 I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인형 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앞줄 왼쪽) 공동의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량주, 불량주 돼도 괜찮나” 李,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민생연석회의 출범

분과별 이슈 발굴, 민생의제 정책 제시
李 “주식시장 침체, 정부 무능때문”
재계 반발엔 “얼마든지 타협 가능”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과 28일에는 무상교육·상법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일정이 또 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청와대(문재인 정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분과별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

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애초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해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유죄라는 예측이 더 많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모양새다.

비록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그간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갖는 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보수 원로와 만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5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서예진 기자

與, ‘기밀언덕법’ 당론추진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사항 등 담겨 노동계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기밀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밀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 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밀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

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밀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밀언덕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밀언덕법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친윤계-친한계, ‘당원 게시판’ 갈등 심화

친윤계, 당무감사 등 진상규명 촉구
친한계, ‘한동훈 죽이기’ 공세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이름으로 약 900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친윤계와 친한계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발언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연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대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친윤계의 공세를 ‘한동훈 죽이기’라며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행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뉴시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비방글이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가 가족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윤 vs 친한 갈등에 가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의무가입인 DC형 상품, 이전 제약 커... 실제 이동은 미진

‘퇴직연금 실물이전’ 1개월

은행 적립액 571억 감소 그쳐
증권사 대규모 유치 기대 무색
제약 많은 DC형, 이전 걸림돌
수익률 차이도 적어 관심 저조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지난 10월31일 도입됐지만 이동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지만 큰 이동은 없었다. 가입 운용사 사이에서만 상품 이동이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179조2330억원이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퇴직연금 갈아타기)’ 도입 직전(179조2901억원)과 비교해 571억원(0.03%) 줄었다.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



지난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시행됐지만 아직은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 이전 도입에 앞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고, 각 증권사가 사전 예약 등 고객 유치에 힘썼던 만큼 미미한 수준이란 평가다.

더군다나 연말에는 퇴직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연말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액은 퇴직금 실물 이전도

입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고객이 기존 상품 해지 없이도 운용기관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지난달 말 도입됐다. 그러나 운용기관 사이에 상품 이동이 미진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제도 도입에도 자금 이동이 미진한

것은 퇴직연금 유형(DB·DC·IRP)이 같은 경우에만 상품을 이동할 수 있고, 특히 의무 가입 상품인 DC형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3가지 퇴직연금 유형 가운데 개인이 상품을 이동할 수 있는 유형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다. 개인이 적립금을 내는 IRP는 자유롭게 상품 이동이 가능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내는 DC형은 사용자와 계약한 운용기관 사이에서만 상품을 이동할 수 있다.

또한 DC형은 IRP형보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보유 비중도 크다. 디폴트 옵션은 각 운용기관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임의로 지정하는 만큼 상품 이동이 불가하다. DC형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의무 가입 상품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가입자는 상품 이동에 제약이 있다.

이어 각 운용기관 사이에 포트폴리오 보유 여부가 다른 것 또한 퇴직연금 이동이 미진한 이유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예금, 공모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보유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현물화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 각 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이 100~600개로 편차가 큰 만큼, 상품에 따라선 운용기관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퇴직연금에 관한 무관심으로 적립금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린 것 또한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예금·연금보험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률이 연 2~3%로 낮고, 운용기관 간 수익률에도 차이가 거의 없어 상품을 이동할 이유가 없다.

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아직은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립액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고, 각 기관의 포트폴리오에도 큰 차이가 없다”며 “각 기관이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고, 수익률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는 만큼, 점차 운용기관을 옮기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문의 많지만 물량 적어... 입주장 효과 실종

부동산 현장 르포

입주 시작 ‘올림픽파크포레온’

2026년 상반기 공급물량 부족 예상
전세가·매매가 당분간 안 내려갈듯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교통이 워낙 편하다.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고 조경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이나 송파에서도 알아보러 오는 수요가 있다.”

27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단지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총 1만 2032세대에 달한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만든 단지로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류역이 있는 더블역세권단지다. 단지 내에 둔촌초·위례초교(2025년 3월 재개교 예정), 동북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올림픽공원과 일자산이 있다.

커뮤니티의 경우 단지마다 갖춰져 있는데 스쿼시, 클라이밍, 어린이체육교실, 수영장 등이 있는 스포츠 콤플렉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부동산에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 /전지원 기자

와 소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1·4단지), 미니풀을 갖추고 있는 스카이 게스트룸(302·304동)이 들어선다.

매수문의는 늘고 있으나 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는 조합원과 달리 일반분양은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이고 3년 안에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물량이 많이 나와 주변 단지의 전세가 내려가지만 입주장효과(신축단지로 인한 대규모 공백에 입주 전 주변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현상)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는 24억~

25억원, 급매가 23억원 정도이고 전세는 9억5000만~11억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해 1억원 가량 저렴하다.

인근 ‘올림픽신수기자촌2단지’ 전용 83㎡ 실거래가는 연초 18억5000만원에서 이달 21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전세가 역시 7000만원이 올라 7억7000만원선을 유지 중이다. 올파포의 전세가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 올파포 이전 대규모 신규 분양 단지였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떨어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집계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에 예정된 물량은 1만8165가구다. 올해 하반기 2만2839가구 대비 20.5% 적은 물량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B씨는 “서울 신축단지의 공급물량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며 “2026년이 되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설명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26일 카카오뱅크 여의도 오피스에서 진행된 ‘2024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성장 중심의 밸류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3년내 고객 3000만명, 자산 100조 달성”

카카오뱅크 애널리스트 간담회

모임통장 혜택 강화, 연령별 서비스 등
양적·질적 성장 도모 사업목표 제시

“앞으로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AI Transformation)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 우선 전략을 추진하겠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6일 ‘2024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가 ‘성장 중심의 밸류업 전략’에 대해 직접 공개하고, 각 부문 전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카카오뱅크는 2027년까지 ▲고객 수 3000만 명 ▲자산 100조 ▲수수료·플랫폼 수익 연평균 20% 성장 등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도모하는 중장기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영유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위한 전용서비스를 출시한다. 11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모임통장의 혜택을 강화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용 입출금 계좌 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다.

윤 대표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2027

년까지 30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주 사용 고객 수를 1300만명까지 늘려 요구불 중심의 수신 자산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으로 영업이익의 성장을 높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5%까지 높인다. 투자와 인수합병(M&A), 글로벌 사업 확대 등으로 2030년 여신이자외 수익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윤 대표이사는 “압도적인 트래픽과 인공지능 기반의 NIM과 플랫폼 등 수익 모델을 최적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핵심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인수합병(M&A)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주주 가치로 전환하는 주주환원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한다.

윤 대표이사는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형(CSS) ‘카카오뱅크스코어’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저신용 대출 공급 목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저신용 대출 규모도 확대하는 등 책임 있는 은행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KB금융,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10억 투입

대전시·한경협과 업무협약 체결

KB금융그룹은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금융과 대전시, 한경협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만남·결혼 ▲출산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봄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KB금융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 등 5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총 16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지원’의 전국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름값 천정부지... 정유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힘 보탠다

기름값 상승, 실적 영향 제한적 분석
계절적 수요로 인한 수익 개선 기대
“정부 정책 협조적으로 나설 것”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 당장 소비자들은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정유업계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적용된 데다 국제유가 상승이 겹친 결과다.

2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공식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33.92원으로 전주 대비 4.81원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8원 상승한 1천633.9원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

이달 셋째 주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8.16원 오른 1467.68원을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정유사들은 이러한 기름값 상승세가 기업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른 기름값에 직영 주

유소나 가맹점 등 현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해져 석유제품 판매량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구조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는 계절적 수요에 힘 입어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

는 분위기다.

올해 3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는 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으나 겨울철 난방유와 연말 항공유 등의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2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스오일도 3분기 영업손실 4149억원을 냈다. 정유부문의 영업손실은 5737억원으로 집계됐다.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영업손실 2681억원을 기록했다. GS칼텍스는 35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업계도 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뉴 EV6 GT 외장.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 ‘더 뉴 EV6 GT’의 계약에 돌입했다.

기아는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EV6GT의 상품성 개선모델인 ‘더 뉴 EV6GT’의 계약을 26일 시작했다.

더 뉴 EV6GT는 주행의 역동성을 높일 특화 사양을 새롭게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는데도 판매 가격은 이전 EV6GT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뉴 EV6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로 향상하고, 런치 컨트롤, 가상 변속 시스템(VGS)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84kWh(킬로와트시) 4세대 고전압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355km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고려아연, 호주 BESS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화’ 선정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양사 친환경 사업 협력 강화 “내년초 공급계약 체결 예정”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우군으로 꼽히는 한화그룹과 호주에서 친환경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호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할 것이다.

26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호주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과 관련해 배터리를 포함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통합) 패키지 공급 업체로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과 한화는 2022년 9월 아크에너지와 한화임팩트 미국 자회사 HP

S글로벌 간 지분교환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한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공동검토 목적의 한·호 컨소시엄 출범을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배터리 공급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고려아연과 한화그룹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호주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BESS 시장을 함께 공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호주 주요 도시인 시드니가 위치해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전력

을 12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2GW의 장주기 저장장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진행된 전기 인프라 건설 지원 프로그램 입찰에서 아크에너지의 리치몬드밸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이 선정, 아크에너지는 지난해 12월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와 장기에너지서비스계약(LTESA)을 체결했다.

사업 개발은 아크에너지가 총괄하고 배터리의 설계, 구매, 시운전은 한화가 맡을 예정이다. 건설 공사는 내년 3분기에 시작해 2026년 중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LTESA 계약에 따

라 뉴사우스웨일즈 전력시장에 하루 8시간 동안 최대 275MW의 전력 용량과 2200MWh의 에너지 저장서비스를 14년간 제공하게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의 여러 기업의 기술력과 역량을 면밀히 비교한 끝에 최종적으로 한화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말부터 TF를 구성해 세부 조건을 논의한 후 내년 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치몬드밸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한화그룹과 호주에서 상업화를 하는 첫 사례로, 양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전선,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참가

송종민 부회장, 현장 진두지휘

대한전선이 글로벌 전시회에서 해상 풍력 분야의 경쟁력을 선보인다.

대한전선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은 국제 풍력 발전 행사로, 한국풍력산업협회(KW EIA)와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 C)가 공동 주관한다.

대한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저케이블 턴키(Turn-key)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최근 당진 고대부두로 부지를 확정된 해저케이블 2공장의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 ‘팔로스’호의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대한전선의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전시장 조감도. /대한전선

함께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해저케이블 공급 실적과 당진 고대부두에 조성하게 될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회 기간동안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해 글로벌 발전사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케이블 시공 완료

전남해상풍력1단지 해저케이블 연결

LS마린솔루션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LS마린솔루션이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해저케이블 시공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LS마린솔루션의 첫 해상풍력 시공 사례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총 96MW(메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5년 3월 시운전을 마친 뒤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2035년까지 8.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전남해상

풍력 2·3단지 등 후속 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인 대만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장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LS전선과 함께 약 500MW 규모의 충남 태안해상풍력 단지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OV(해상풍력 지원 선박)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시공 선박 신규 건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에코프로에이치엔

우리사주 청약률 113%

에코프로에이치엔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청약 수요조사에서 모집 수량을 웃도는 물량을 신청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 신청률이 113.2%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 수는 전체 유상증자 규모(567만주)의 20%인데 이를 넘어서는 청약 수요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총 2370억 원(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T커머스, 생방송 허용·전용채널 논란... 제도 보완이 '관건'

중소 판로 확대 vs 시장질서 혼란

상품 홍보 기회 확대·매출 증대
신규 채널로 제품 소비자 접근성 ↑
공정성·평등 원칙 위배 우려 제기
규제 회피·형평성 문제 갈등 증폭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에서 생방송 송출 허용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도입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과도한 경쟁 심화로 인한 송출수수료 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T커머스는 TV 시청 중 전화가 아닌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TV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 주를 이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생방송을 통한 제품 판매는 TV 홈쇼핑 인가를 받은 방송사만 가능하다. 이에 T커머스 업계는 이를 불합리한 규제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생방송 허용을 요구해왔다. 과기부는 지난해 말 '지



Chhat GPT에 의해 생성된 T커머스 스튜디오와 TV 홈쇼핑 스튜디오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역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구성해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방송 허용 시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하대 하주용 교수는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하면 두 사업간 구분이 없어지고, 현행상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은 중

소기업 판로 확대, 농수축산물 편성규제, 사회공헌 등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 반면, T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생방송이 허용되면 T커머스가 홈쇼핑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홈쇼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므로, 두 사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어 현행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판로 확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수년째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7.1%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

회는 지난 4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이를 검토한 후 채널 설립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T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역성장과 과잉 경쟁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T커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신규 채널이 등장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더 해칠 것"이라며 "과잉 경쟁으로 송출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는 채널 신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송출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 시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KT, AI로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리 강화

AI 마이스터·AI 오퍼레이터 도입 고객 품질 향상·운영 안정성 혁신

KT는 인공지능(AI)이 접목된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네트워크 운용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KT가 이번에 적용한 AI 시스템은 'AI 마이스터', 'AI 오퍼레이터'다. AI 마이스터는 생성형 AI로 네트워크 장비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리를 돕는다. 이 시스템은 조치 방법 제안, 시스템 진단, 상태 해석, 기술지식 검색 등 4개의 '프롬프트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운용 전반에 필요한 노하우를 대화 형태로 제공한다.

AI 마이스터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관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전



KT 임직원이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AI 마이스터와 AI 오퍼레이터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KT

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망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진단되는

만큼 관련 서비스의 안정성도 향상시킨다.

AI 오퍼레이터는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 관리를 돕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작업관리 시스템(MOSS)과 안전관리 시스템(NeMO)의 기능이 합쳐졌다. 시스템 진단, '조치방법 제안' 등의 AI 기능을 추가해 고객 서비스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기획됐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손으로 진행했던 시스템 입력 방식을 스피치 투 텍스트(STT)로 바꾸는 기능이 앞으로 추가된다.

AI 마이스터는 유선 분야의 핵심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됐으며 향후 무선 등 전체 네트워크 장비로 확대될 계획이다. AI 오퍼레이터는 현장 업

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고객 접점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할 때 활용되고 있다. KT는 AI 오퍼레이터를 유무선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개선한다.

KT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이상 패턴을 AI가 스스로 모니터링해 고장 징후를 감지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조치 방안을 도출해 이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운용 체계를 진화시킬 방침이다.

오래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은 "KT는 AICT Company로서 네트워크 운용 영역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AI를 활용하여 고객의 체감 품질과 운용 안정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대한항공 '코트룸 서비스' 재개

대한항공이 겨울철 항공기 이용객을 위한 코트룸 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한다. 다만 올해는 T2 확장 공사 완공 전후로 서비스 장소가 달라졌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승객의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코트룸 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겨울철마다 시행해 온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통해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승객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 동안(접수일 포함) 무료로 맡길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루당 2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추가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1일 350마일)로 결제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서비스 시작일인 12월 1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스카이패스-마일리지 사용-부가서비스 탭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SKB, 맞춤형 서비스로 업무 처리 간소화

'챗비 2.0'으로 A/S·결제 원스톱

SK브로드밴드는 자사 홈페이지 'B월드'의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AI 플래너를 도입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의 챗봇 서비스 '챗비'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업무도 더욱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챗비 2.0은 고객 유형·상황별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대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애프터서비스(A/S)나 이사, 가정 내 이동, 변경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서비스 매니저 방문을 예약한 고객에게 일정과 사전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챗봇이 알아서 먼저 제안하는 식이다.

또 기존에 본인 인증이나 요금 납부, 결제 등을 위해 별도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챗봇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민 기자

SGC파트너스, 우주항공 신성장 동력 확보

텔레픽스에 AI 기술 결합 등 투자

SGC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SGC파트너스가 총 1400억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며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SGC파트너스는 위성 토달 솔루션 기업인 '텔레픽스'에 투자했다고 26일 밝혔다.

SGC파트너스는 텔레픽스의 마이크로 위성 분야 기술력과 성과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미래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재무적 성과를 넘어 연구개발·기술이전·조인트벤처 설립·M&A 등 신규 사업 기회 모색

및 기술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텔레픽스가 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진행한 시리즈C 라운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SGC에너지도 함께한다. SGC파트너스와 SGC에너지는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출자했다.

텔레픽스는 초소형 위성 탑재체 개발과 위성 정보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국내 위성 분야 유망 기업이다. 특히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한 위성용 인공지능 프로세서 '테트라플렉스(TetraPLEX)'의 우주 실증 성공은 텔레픽스의 우주항공 비즈니스 역량을 보여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차현정 기자 hyeon@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국내증시 부진 흐름에도...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수익 '선방'

증권사 31개사, 3분기 수익 2.1兆
전년비 0.71% ↓... '빚투' 확산 영향
개인투자자, 레버리지 투자 활용 추세
삼성전자 등 하락세 종목에도 몰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자수익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증권사 이미지.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의 3분기 누적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1% 이내 소폭 감소한 것에 그쳤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1개사의 3분기 누적 신용공여 이자 수익은 총 2조17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조1927억원) 대비 0.71% 감소한 수치다.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주식매매 등을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것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용자와 투자자가 예탁한 주

식, 채권, 펀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 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확산되면서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약세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이자수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대부분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

을 올렸다. 이 기간 NH투자증권은 2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했으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2636억원, 3585억원으로 각각 3.2%, 2.51% 늘었다.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꼽힌다. 레버리지 투자는 특정 자산의 하루 변동률의 2~3배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방식으로, 낮은 수익률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7월에는 20조원대였으며,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17조원대를 유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150지수의 일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KODEX 코스닥

150레버리지를 3789억원으로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씩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역시 2259억원 사들였다. 삼성전자 등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빚투'가 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용자 잔액은 1조731억원으로 연초(2616억원) 대비 310.21%(8115억원) 늘었으며, SK하이닉스의 신용용자 잔액도 3255억원으로 연초(1600억원) 대비 103.44%(1655억원)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엔비디아·테슬라 반등세... 투자심리 회복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주가, 이달 10.73% 올라
반도체 종목도 꾸준히 순매수
테슬라, 9899만달러 추격매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들이 올해 미국 증시 내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줄어들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도 회복됐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모두 주가 반등 기미가 시작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9일~25일)에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7803만달러(1091억원)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약 4개월간 엔비디아에 대한 순매도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순매수세로 전환된 뒤로는 다시 높은 선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개별 종목 외에도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그레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도 6612만달러(925억원) 사들였다.

하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함과 동시에 지난 20일(현지시간) 실적 발표가 예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심도 회복된 것으로 보여진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10.73% 증가했다.

다만 22일과 25일, 2거래일 동안은 3.22%, 4.18%씩 급락하면서 최근 3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350억8000만달러(약 5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4분기에도 375억만달러(약 52조원)의 매출액이 예상됐다.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6% 급증한 호실적이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에 오히려 실적 발표 후 약세를 보였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동사의 당분기 실적 및 다음 분기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으나 시장의 실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엔비디아는 지난 수년간 동사의 가이드نس 및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상회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서학개미들은 꾸준히 반도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 역시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다. 연초부터 지난 25일까지는 6억4697만달러(9047억원), 지난주에는 1억297만달러(1440억원) 사들이면서 압도적인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를 지난주에만 9899만달러(1384억원) 사들이며 추격매수에 이어갔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미국 대선 이후 급등세를 보여왔다. 서학개미들은 한 발 느리게 투자를 집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호재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졌던 18일부터 22일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9.92%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운용, ASOX 지수 추종 ETF 선포

美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는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AI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한다. 반도체 설계, 장비, 파운드리, EDA 및 IP 분야의 AI 관련 기업을 포함하며, 특히 AI 가속기 관련 매출이 있는 팹리스 기업과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매출이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미국AI필라델피



현지시간 25일 미국 나스닥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신규 상장을 기념해 뉴욕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를 게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반도체지수(ASOX)'다. 이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3년 글로벌 대표 반도체 지수인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SOX)'를 선보인 이래 30여년만에 새롭게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지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채권 전문가 83% "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

금투협 '내달 채권시장지표'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12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준금리 동결 응답자 비율은 83%로 전달 조사(36%) 때보다 크게 상승했다.

나머지 17%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

으로 전망했다.

금투협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진입하면서 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줄어들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전망은 64%가 '보합'을 점쳐 가장 답변이 많았다. 하락할 것이라는 반응은 24%, 상승한다고 본 이들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달과 비교해 감소한데다 물가 및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하락 예상이 뒤

섞이면서 채권 금리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와 환율에 관한 채권시장 심리는 모두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응답자 비율은 전월 8%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30%였고, 응답자 3%는 물가 하락으로 답해 전월 19%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안정적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을 전망한 답변도 21%로 전달(4%)보다 많이 증가했고, 환율 하락을 내다본 이들은 31%로 전월의 45%보다 대폭 줄었다. /원관희 기자

"선제적 회계감리로 한계기업 신속 퇴출"

금감원 "한계기업, 5년간 63.9% ↑"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이 50억원을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를 조작했다. 제조하지 않은 가공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냈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점이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신속 퇴출하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규모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한계기업들의 회계 위반 주요 사례로는 ▲가공의 매출 계상(매출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영업이익·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재고자산 조작(재고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개발비 등 과대계상(무형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당하거나 통보조치가 내려지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외부감사인에도 외부감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수입차 업계, 연말 ‘신차 레이스’ 친환경·경제성 다 갖추고 출격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연말 ‘친환경·경제성’을 갖춘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친환경차 바람에 맞춰 국내 시장도 전동화 모델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토요타와 BMW, 아우디 등은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신형 모델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는 이날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단인 캠리의 신형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이달 1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 캠리는 9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26일 현재 사전계약 500여대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캠리는 TNGA-K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요타 최신 디자인 방향성을 반영해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출시된다. 파워트레인도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5세대 THS를 탑재, 기존 모델보다 엔진과 모터 출력을 개선했다.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 기모터를 조합한 9세대 캠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총 227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17.1km/L(복합연비)의 연비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모델 대비 가속 성능이 향상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토요타는 캠리 가격을 4800만~5360만원으로 책정했다.

BMW는 28일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X3를 국내 선보인다. 뉴 X3는 기존 세대보다 커진 차체와 강렬한 내외관 디자인을 기반으로 최신 운영 체제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OS) 9를 탑재해 진보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모든 모델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강화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는 전동화 모델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G바겐이라 불



토요타 2025년형 캠리.



아우디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토요타 하이브리드 신형차 ‘캠리’
BMW 4세대 완전변경 모델 ‘뉴 X3’
벤츠 한정판 ‘에디션 원’ 내년 출시
아우디 더 뉴 Q6 e-트론 사전 계약

리는 오프로더의 아이콘 G클래스의 첫 순수전기차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벤츠코리아는 한정판 모델인 ‘에디션 원’을 올해 선보이고 일반 모델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국내 70대 한정 판매되는 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에디션 원 모델의 가격은 2억3900만원이다.

아우디는 중형 전기 SUV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최근 한국 시장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아우디가 포르쉐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양산 모델이다. 효율성과 주행 역학, 디자인 등에서 새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전장 4771mm, 전폭 1939mm, 전고 1648mm의 넉넉한 차체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100kWh(킬로와트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641km(유럽연합 기준)에 달한다.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의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원 초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점포 축소… 접근권 보장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지난 5년간 국내점포 1000개 폐쇄
이동점포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



다른 점포 감축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10
만명당 은행 점포 수
는 12.7개로 OECD
국가 평균 15.5개보
다 적다. 지난 2021년

말 6121개에 달했던 은행 점포는 지난 달 기준 5690개로, ATM은 3만1789개에서 2만 7157개로 감소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708개, 비수도권 481개 등 총 1189개의 은행 점포가 폐쇄됐다.

이에 비도심 거주자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도 ‘금융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점포·ATM 대체 수단 마련 ▲이동점포 활성화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부담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 AI 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 및 장애인용 인프라 확충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 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행사에는 6개 금융협회장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로 ▲은행 점포폐쇄 추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는 경영효율화에

/허정윤 기자 zelkova@



‘Voices of Galaxy’ 영상에 출연한 배우 고민시(왼쪽)와 데이식스 드러머 도운.



/삼성전자

삼성 “인생 답, 하나가 아냐” 수험생 응원



‘Voices of Galaxy’ 조회수 1800만회
배우 공효진·고민시 등 영상에 출연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삼성전자의 ‘Voices of Galaxy’ 영상이 화제다.

삼성전자는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Voices of Galaxy’ 영상의 조회수가 1800만회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4일부터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갤럭시가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한 ‘Voices of Galaxy’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배우 공효진, 고민시, 박보영, 여행 인플루언서 빠니보틀,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밴드 ‘데이식스’의 드러머 도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룬 셀럽이 출연해 수험생을 응원한다.

총 6편으로 제작된 영상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며 2주 만에 조회수 1800만 회를 돌파했다. 또 업로드된 지 5일

만에 총 조회수 86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인 셀럽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무 살의 탐험을 갤럭시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된다.

배우 공효진은 “시험에 답은 하나지만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며 뒤편 도전해볼 기회를 제안하고, 빠니보틀은 “시험이 끝난 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한 상태와 같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자신이 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드러머 도운은 “점점 재밌어지는 게 인생”이라며 “시험은 끝났지만 인생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가자”며 힘찬 격려를 보냈다.

한편, 삼성전자는 수험생을 위한 든든한 혜택으로 가득한 ‘갤럭시가 응원합니다! 수능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정 생년월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인 고객이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하고 개봉하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버즈3’를 증정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온라인 호조…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

산업부, 10월 유통업체 매출 15.3조
대형마트·백화점 등 매출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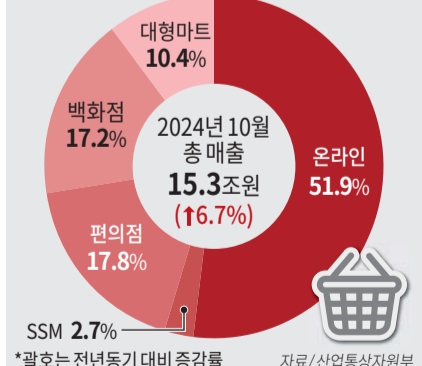
올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수준에 머문 반면, 온라인 구매 확대로 온라인 매출 확대가 전체 매출 증가를 끌어올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3000억원 대비 6.7% 늘었다.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희비는 엇갈렸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휴일 수 1일 감소 등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생필품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3.7% ↑)·준대규모점포(7.1% ↑) 매출은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3.4% ↓)·백화점(2.6% ↓) 매출은 부진했다.

유통업체별 매출 구성비



대형마트의 경우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 등이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은 식품, 해외유명브랜드는 상승했지만, 가을 옷 구매 감소 등으로 대부분 부진했다.

온라인의 경우 서비스(66.5% ↑), 식

품(24.8% ↑), 생활/가정(11.3% ↑) 등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패션/의류(9.8% ↓), 가전/전자(12.7% ↓) 부문은 감소,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문화(11.6% ↓), 패션/잡화(6.0% ↓), 아동/스포츠(4.7% ↓)는 감소, 서비스/기타(31.7% ↑), 식품(11.8% ↑) 등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은 소비동향과 악을 목적으로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편의점3사, SSM 4사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사 10개사의 월간 매출액 또는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 443명 떨어짐·화재·폭발 사고 증가세

고용부, 재해 사망사고 통계

50인미만 사업장 사고사망 56.2%
50인 이상 제조업 전년비 46.3%
건설업 203명·떨어짐 163명 최다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50인(약)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넘은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50인(약)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전년동기(459명) 대비 16명(3.5%), 사망사고 건수는 38건(8.5%) 감소했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의 전년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4명(108건), 기타 업종 106명(103건) 순으로, 전년 대비 건설업이 감소한 대신, 제조·기타업 사망자가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약) 이상은 194명(166건)으로 2명(1.0%) 증가했고, 50인(약) 미만은 249명(245건)으로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18명(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50인(약)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46.3%(25명)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77명이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이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62명), 끼임(48명), 화재·폭발(4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 감전(19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부딪힘, 깔림·뒤집힘 등은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 감전, 물체에 맞음은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136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남(40명), 서울(37명), 부산(32명), 전남(32명), 경북(31명), 전북(24명), 충북(22명)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현장 점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

농식품부·해수부·법무부 제도 개선 비자 통합·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 체류일수 보장서 주당 35시간 보장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 기준이 현행 '체류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및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90일 체류의 C-4 자격 근로자의 경우, 68일 이상)을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호우·폭염 등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기



지난 8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을 추진 중이다. 농번기에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은 "2015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농어업 근로 환경이 변화한 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차단을 위함이다.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족 범위 축소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푸드+, 9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31개국 바이어와 현장 계약·협약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2024 수입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에서 9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9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6일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에 더해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20~22일 기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수출상담회엔 전 세계 31개국 해외 바이어 92개사 및 국내 수출기업 245개사가 참가했다. 수출 상담은 모두 1729건, 9700만 달러 규모로 실시됐다. 그중 41건, 9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맺어졌다.

농식품 분야에선 전통 된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고체형 조미 된장과 피자 시장 개척을 위한 가정간편식(HMR) 1인 피자 등이 눈길을 끌

었다. 또 신선 과일 채소를 착즙한 주스, 냉동 김밥, 떡볶이, 김말이, 냉동만두 등 한국 길거리음식도 수입업체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또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해외 현지 매장 판촉, 홍보, 제품 현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 체결됐다. BGF리테일, ㈜동서웰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 참여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다른 편의점 바이어들도 수출국 현지 시장 편의점 입점을 위한 과자류, 냉동 및 냉장식품류, 밀키트, 음료 등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분야에선 유기농업자재, 펫푸드 등이 중국, 태국, 폴란드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끌어 현장계약이 체결됐다. 외식 가맹(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한식·분식·치킨·커피·외식기업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베트남 상하수도 사업 등 녹색시장 개척

환경부,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 논의

환경부가 이달 하순 녹색산업 수주 지원단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한다. 현지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베트남 건설부와 오는 27일(현지시간)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상하수도 시장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베트남 건설부 응우옌 프엉 반 차관의 개회사 및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베트남 건설부에서 자국의 '상하수도법' 제정 경과를 발표한다. 이후 한국

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내 상하수도 정책 및 기술 기준 등 물산업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판 민 쩌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 사업이다. 올해 7월 양국 총리 임석하에 양국 장관 간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복합단지다.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상호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분야 우수 기술을 알리는 발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비전공에도 10개월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주목

#김정(33·남) 씨는 밴드 '케슈넛 블라썸'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했다. 생활이 어려워 알바와 창업을 했으나 녹록하지 않았다. 새 길을 모색하던 중 지난 3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시소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비전공자지만 진로 전환에 성공해 현재 유니베라 비전개발팀에서 쇼핑물과 앱 기획을 담당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분야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과정이 비교적 짧고 집중적으로 배우는 하이테크과정을 활용하면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6일 김 씨와 같이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첨단 분야 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직종이 구성돼 있고, 비전공자라도 약 10개월 동안 공부하면 취업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지난해 이 과정에 입학한 청년 중 57.7%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었고, 수료생 10명 중 7명(75.7%)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3개월 취업유지율은 9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실증도시 광주’서 스타트업-대·중견기업 동반성장 도모

내일부터 이틀간 ‘창업페스티벌’ 스타트업·투자자 510곳 등 참가 창업기업 판로개척·성장 지원 창업아이템 기술이전 기회도 제공

광주광역시시는 28~29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자, 국내외 대·중견기업 14개사가 참가하는 지역 최대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을 개최한다.

이번 창업페스티벌은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 및 체험 ▲컨퍼런스·포럼 ▲투자유치 IR ▲마켓·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 등이 협력 세레머니를 통해 ‘실증도시 광주’에서의 동반성장을 다짐한다.



2024광주창업페스티벌 포스터. /광주광역시

스타트업 170개사와 대중견기업 16개사, 창업유관기관 6개사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25개 실증 제품을 경험하는 ‘실증 빌리지’를 선보인다. 실증 빌리지에서

는 현재 광주시 전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실증 Q&A관’을 운영해 실증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실증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기관과의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기관, 투자사를 초청해 전시참가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실증 테크니컬 투어’도 열린다.

이밖에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등 총 6회의 투자유치IR 행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도약·성장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고자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

상으로 ‘창업아이템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대학팀의 창업 아이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창업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를 탈피해 국내외 창업생태계와 사전 네트워킹 행사를 올 2월부터 총 14회 진행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아우토반코리아, IBK창공, 삼성 C-Lab, 호반그룹, 효성 및 비온사이노베이터, DH글로벌, 호원, 오피노스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 등이 참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광주창업페스티벌은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료

밀양시는 25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4년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1만 4000여 명의 밀양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용 국회의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각종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산청군

‘경남도4-H대상’서 4개상 수상

산청군은 ‘제44회 경남도4-H대상’에서 도지사 표창 등 4개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에는 ▲4-H육성 우수회원 도지사 표창에 박상민 산청군4-H연합회 부회장 ▲경남4-H대상 청년4-H 우수회원에 김준민 산청군4-H연합회원 ▲공로상에 김수연 산청군 주무관 ▲4-H단체 우수 사례 장려에 산청군4-H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산청군4-H연합회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여주시

민원처리 평가 7년 연속 ‘우수’

여주시가 ‘2024년도 전라남도 이송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도내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시군으로 이송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민원처리 적극성·갈등해소 노력 ▲민원 관련 행정이행사항 이행 여부 ▲권익위 민원 답변안 준수 여부 ▲민원인 통지방식 준수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1차 자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해남군은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자 105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규모는 702ha, 5억 1031만원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대구시, ABB 산업 활성화 박차 ‘SGA그룹 통합연구소’ 구축

SGA그룹, 2028년까지 420억 투자 IT 연구개발 인제 90명 신규채용 sLLM 기반 챗봇시스템 등 개발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IT보안 전문기업 SGA(주)(대표 박재한)와 수성알파시티 내 ‘SGA그룹 통합연구소’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GA그룹은 통합 IT보안, 응용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8개 계열사를 보유한 IT전문 기업으로, SGA(주)와 SGA솔루션즈(주) 등 주요 계열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그룹은 2028년까지 총 420억 원을 투자해 수성알파시티에 7층 규모의 통합연구소를 건립하고, IT 연구개발 인제 9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SGA그룹은 이번 투자로 소형언어 모델(sLLM) 기반 대화형 챗봇 시스템과 AI 기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을 대구에서 본격화한다. 특히, SGA(주)의 본사 연구소를 대구로 이전하고, SGA솔루션즈(주)와 보이스아이(주) 등 3개 계열사의 제2연구소를 통합해 수성알파시티를 IT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삼을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수성알파시티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로,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역의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업 유치와 지역 ABB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AI 전환 연구개발 허브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장군, 탁월한 토지행정 성과 인정받아

장관상, 우수기관 선정 등 쾌거

기장군은 토지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으며 각종 평가에서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47회 전국 지적 세미나’에서 기장군 토지정보과 김가빈 주무관이 발표한 ‘드론을 활용한 가감지역 관리 방안’이 최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발표한 ‘드론을 활용한 가감지역 관리 방안’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드론 정사영상 활용 업무를 연계한 것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 과제로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기장군은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업무역량을 인정받으며 지적 재조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사업지구인 ‘죽성1지구’와 ‘명례1·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등 큰 성과를 냈으며 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 특수시책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에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명확한 토지경계 확립과 지적 불부합해소를 위한 기장군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포항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4명에 대해 최고장인 증서와 증패를 수여했다.

포항시, 최고장인 4명에 증서·증패 수여

기계정비·광학 등 4개 직종 선정

포항시는 25일 시청에서 ‘2024년 포항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4명에 대해 최고장인 증서와 증패를 수여했다.

올해의 최고장인은 기계정비 직종의 김규식(씨포스코), 광학 직종의 이철수(주)포스코, 미용 직종의 김수진(부니뜨 김수진 뷰티살롱), 이용 직종의 전용용(성동)으로 4개 직종 4명이다.

선정된 최고장인에게는 증서와 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기술장려금 지급과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8월 공고로 총 10명의 후보자가 접수했고, 서류심사에 통과된 후보자에 대한 관련 직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종 4명이 선정됐다.

특히 최고장인 선정 요소에는 본인의 기술 숙련도 뿐만 아니라 후진양성, 사회봉사 등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회 기여도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의령군, 내년 예산안 5223억 규모 편성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

경남 의령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223억원 규모로 편성해 25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난 액수로 미래 기반을 다지는 투자유치 사업 성과와 역대급 공모사업 선정이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의 발판이 됐다.

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 선제 대응을 펼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런 배경에는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분야에 꾸준히 투자

해 온 군의 건전 재정 운용의 결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발돋움,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개막, 기업 투자유치 가속화, 도시재생·농촌공간정비 사업 완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5대 역점 과제로 정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림 분야 1119억, 사회복지 분야 9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3억원, 환경·보건 분야 58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30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9억원, 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 10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생산량 급감에 가격상승... 유통업계 '굴' 물량확보 총력전

생산량 작년 3만t→올해 1.8만t
전례없는 무더위에 '집단 폐사'

이상 기후로 딸기와 굴 등 겨울 제철 음식의 공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물량 확보와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전에 나서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상 기후로 딸기와 사과 같은 과일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굴을 비롯한 수산물에서도 공급난이 심화되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특센터에 따르면, 지역별 굴 생산량은 지난 2023년 3만707톤에서 올해 1만8087톤으로 급감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김장성수품 가격 및 물량 현황 자료를 미루어 봐도, 지난 18일 기준 굴 반입 물량은 22톤으로 5개년 평균 대비 21% 감소했다. 대파, 쪽파, 양파 등 다른 김장 부재



남해산 생굴 사전예약 판매 관련 이미지.



/SSG닷컴

이마트 여름부터 '물류루트' 개설 생굴 60t 확보... 최대 40% 할인

쓱닷컴 생굴 3종 사전예약 판매 시세대비 50% 할인가에 선보여

컬리 봉지굴 30% 할인판매 나서

료의 반입 물량은 같은 기간 모두 증가한 반면, 굴 반입량만 줄어든 것이다.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수온이 상승해 채취돼야 할 굴이 집단 폐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작년 916줄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감소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유통업계는 물량 확보에 나서는데, 할인전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지난달 생굴 60톤을 확보해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였다. 공급난 속 물량 확보를 위해 사전에 물류 루트를 개설하고, 굴 껍데기를 까서 굴 살만 분리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공장(박신장)과의 계약 건수를 확대했다는 게 마트 측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높아진 온도에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수산물 물량 확보를 위해 여름부터 물량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어려워질 생굴 환경을 감안해, 일찍부터 통영, 고성, 거제, 사천 등 지역 물류루트 개설했다"고 전했다.

쓱닷컴(SSG)도 지난 22일부터 자연산 생굴 3종을 사전예약 판매했다. 남해

산바위굴, 돌굴, 석화 등 수산물을 시세 대비 50% 할인가에 선보였다.

이승재 SSG닷컴 축수산팀 상품기획자(MD)는 "전국 우수 산지에서 갓 수확한 해산물의 직송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 역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을 열고 이달 27일까지 '신선한 국산 생굴(420g)' 상품을 26%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남해안 봉지굴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굴 작황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으로 물량 자체가 평년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배추 가격이 함께 비싸져 김장을 잘 안 하다보니 굴 소비 자체도 많이 없었다. 공급이 감소했는데도, 수요가 같이 줄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불닭 성공전인 인재 중용... 글로벌 리더 강화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원인사

김동찬, 1년만에 전무→부사장 승진
중 최대실적 경신... 김주영 전무로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역대 최대 실적 및 불닭 브랜드 연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 아래 핵심 기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을 골자로서 2025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불닭 브랜드의 성공을 견인한 인재를 중용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에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직급 승진했다.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지 1년 만이다.

김부사장은 지난해 삼양식품 대표이사 선임 이후 적극적인 품질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크게 견인했다. 2025



김동찬
삼양식품 부사장



김주영
삼양차이나 전무

년에는 더욱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기조 아래 밀양 2공장을 안정적으로 준공하고,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등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김주영 삼양차이나 법인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화 마케팅, 신제품 출시, 판매 채널 다각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향후 김주영 법인장은 중국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 승진은 총 3명이다. 먼저 신용식 삼양아메리카 법인장은 미주 지역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이끌어내며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병훈 삼양식품 식품연구소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타깃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이뤄내 글로벌 시장 공략의 근간을 만들었다.

최의리 삼양라운드스퀘어 브랜드전략실장은 그룹 리브랜딩을 주도하고 글로벌 불닭 마케팅을 통해 팬덤 중심의 독보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여기에 ▲김경동 삼양스퀘어팩 대표이사 ▲김용호 삼양식품 유통영업부문장 ▲김진공 삼양식품 AMEA 세일즈 부문장 ▲오승용 삼양식품 밀양공장장 ▲원주연 삼양식품 스프1팀장 등이 새롭게 상무보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각각 식품패키징 역량 강화, 국내 영업 효율성 개선, 글로벌 영업망 확대, 밀양1공장 안정화, 불닭 브랜드 연구개발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리바게뜨, 영국 런던에 첫 가맹점 오픈

유럽시장 공략 속도전

SPC그룹파리바게뜨가 영국에 첫 가맹점을 오픈함과 동시에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열며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파리바게뜨는 2022년 영국에 진출하며 확장해 나갔다. 이후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의 핵심 상권에 직영점을 운영하며 현지 시장 파악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해왔다. 이번엔 오픈한 첫 가맹점은 런던의 금융 허브인 카나리 워프 지역에 자리잡았다.

유명 쇼핑몰인 '주빌리 플레이스' 1층에 위치했으며 50석 규모의 매장이

다. 카나리 워프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다.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쇼핑몰 분위기와 어우러지도록 목재와 대리석 소재를 적절히 배합해 꾸몄으며, 오픈키친을 강조해 파리바게뜨의 장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파리바게뜨는 기존 영국 매장은 물론 미국·캐나다·프랑스·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샌드위치와 페이스 트리 등을 주요 메뉴로 선보인다.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에서 축적한 글로벌 가맹사업 경험과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럽 가맹 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사내벤처 3기로 분사한 알앤지컴퍼니 대표 안동광(오른쪽)과 롯데웰푸드 경영기획팀 박민규 책임.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사내벤처 '알앤지컴퍼니' 분사

맞춤형 혼합잡곡 '마이그레인' 주력

롯데웰푸드의 세 번째 사내벤처 '알앤지컴퍼니(R&GCOMPANY)'가 독립사업체로 분사한다. 알앤지컴퍼니는 한국인의 주식(主食) 곡물을 주문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력 상품은 개인 맞춤형 혼합 잡곡 서비스인 '마이그레인(My grain)'이다. 간단한 설문과 취향을 반영해 20여 가지 잡곡 중 최적의 5곡 배합을 추천해

준다. 기성 혼합 잡곡이 개인의 건강이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면, 마이그레인은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잡곡을 제공한다.

마이그레인 이외에도 원하는 잡곡과 비율을 취향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시그니처그레인', 대중적인 인기상품과 단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레인포울'까지 세가지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칠성사이다, 24년만에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 누적 375억 캔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는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리뉴얼은 24년만에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것으로, 기존 칠성사이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유 심볼인 별을 크게 키워 제품 중앙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빛나는 관심으로 함께 해 온 칠성사이다가 더 커진 별만큼 일상에서 더 즐겁게 빛나고자 함을 표현해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볼드하고 모던한 폰트의 변화로 가독성도 높였다.

1950년에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의 74년간 누적 판매량이 375억캔(250ml 캔 환산, 2024년 10월말 집계 기준)을 돌파했다. 이는 1초에 16캔씩 판매된 것으로 한 캔당 13.5cm인 제품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약 4만km)를 127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되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약 730캔씩 마신 셈이 된다.

칠성사이다는 국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경쟁사가 생산이 중단될 때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애환과 갈증을 달래주는 위로가 됐다. 국내에서 칠성사이다는 '사이다'의 대명사이자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김밥과 삶은 계란 그리고 칠성사이다 조합은 중장년 세대들에게 '소풍삼합'이란 별칭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으며 그 전통만큼이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탄산음료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화체나 김장, 홉카페 같은 다양한 먹거리의 레시피에도 활용되는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위스키, 식당서 만나요”… 픽업·프리오더로 시장 판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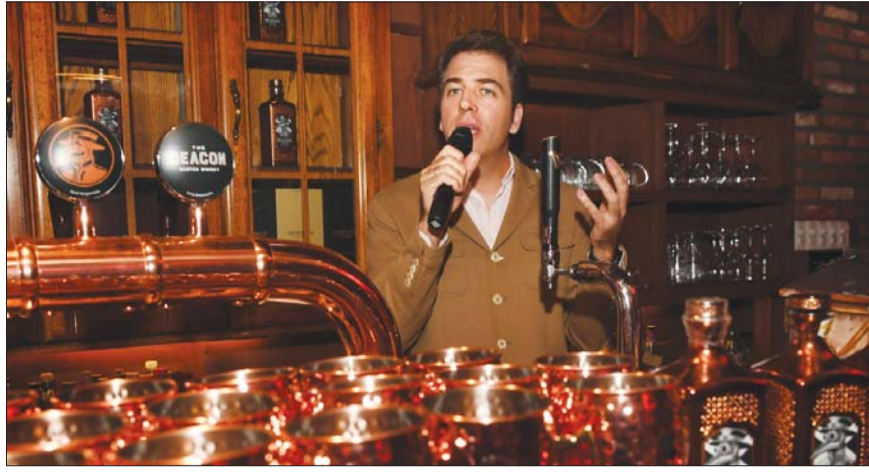
위스키 업계, 새 성장 동력 모색
합리적 가격·프리미엄 품질 공략
식당 중심 픽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내 고도주·페어링 선택지 확대

연말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스키와 데킬라 등 도수 높은 주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통상 여름에는 청량하고 시원한 맥주 수요가 높지만, 겨울에는 국물요리와 어울리는 고도주의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위스키 업계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고도주 카테고리를 늘리고, 프리오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2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위스키 수입액은 2019년 1억5393만달러에서 2021년 1억7534만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2억6684만달러로 52.2% 급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장기화 영향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위스키 수입액 2억295만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글로벌 주류업체들은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미국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는 호밀을 주원료로 만든 ‘와일드 터키 101 라이’를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 선보였고,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와인 기업 소비빈과 협업한 스카치 위스키



‘더 디콘’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미겔 파스칼(Miguel Pascual)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 /페르노리카 코리아

‘더 디콘’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국내 위스키 시장 속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인구를 따져보면 1인당 위스키 소비량은 많다”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주류 포트폴리오를 넓혀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렌피딕과 발베니를 유통하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는 기존 바(Bar)와 가정에 국한되었던 위스키 소비를 식당까지 확대했다.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앱 캐치테이블과 협력해 지난 4월 위스키 픽업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 프리오더 서비스를 선보였다.

위스키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위스키를 전국 500여 식당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리오더 서비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위스키를 사전 주문한 후 식당에서 수령해 위스키와 요리를 페어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식당에서 소매가의 1.5에서 2배 정도로 판매되던 위스키를 최대 55% 할인해 보틀숍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해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게다가 소비자에게 소주, 맥주를 벗어나 또 다른 페어링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서비스들은 출시 이후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위스키 픽업 서비스는 오픈 5분 만에 상품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프리오더 서비스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해외 젊은층을 중심으로 데킬라의 인기가 번지자 데킬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



위스키 프리오더 서비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는 기업도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최근 순도 100% 아가베로 만든 프리미엄 데킬라 ‘알토스 플라타’를 출시했다. 바텐더들을 위해 만든 데킬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믹솔로지 트렌드에 힘입어 국내 프리미엄 데킬라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코리아는 지난해 론칭한 데킬라 브랜드 ‘돈 홀리오’의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9월 창립자인 돈 홀리오 곤잘레스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최고급 데킬라 ‘돈 홀리오 울티마 리제르바’를 국내에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라이브쇼핑 ‘뷰티의 신세계’ 론칭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뷰티 전문관 ‘뷰티의 신세계’를 모바일 앱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뷰티의 신세계’를 통해 키아이드 에센스, 더마클라센 탈모케어 샴푸 등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브랜드 상품을 비롯해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이너뷰티 ▲디바이스 ▲뷰티소품 등 다양한 일반 브랜드 제품군을 선보인다.

헤라, 로레알, 동국제약 마데카프라이 등 인기 있는 100여 개의 뷰티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의 고급 뷰티 상품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럭셔리 뷰티관도 별도로 마련됐다.

브랜드별 특색 형태 콘텐츠와 다양한 스타일의 뷰티 숏츠도 배치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관련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신세계라이브쇼핑 측 설명이다.

/안선진 기자 wotjs4187@

셀트리온, ‘스테키마’로 독일 바이오 혁신 가속화

김형기 부회장, 스테키마 연구 발표
독서 직접 영업 지휘·네트워크 확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서 리더로 도약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이달 출시된 후속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13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해 기존 제품들의 경쟁력을 알리는 한편, 이달 초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를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형기 셀트리



셀트리온 독일 미디어 간담회 현장.

온 글로벌판매사업부 대표이사 겸 부회장이 참석해 ‘셀트리온, 독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구자를 넘어 리더로’란 주제로 직접 회사 경쟁력을 소개

했다.

행사에는 독일 주요 의료 전문 매체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및 스테키마 등 임상 시험을 주도한 독일 현지 의료진이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 독일 법인은 2019년 5명의 직원들이 램시마 판매로 영업을 개시하고 5년이 지난 현재, 8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총 7개의 의약품 판매 중이다. 직관 3년 차인 2022년 매출액 1억 유로(약 1500억 원)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 추세다.

김 부회장은 간담회 이후에도 독일에 머물면서 영업 활동을 직접 지

휘하며 현지 의료진 등 주요 이해관계자(KOL)들과 미팅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로 의료 산업 전반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모두 지닌 핵심 국가로 꼽힌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램시마 제품군(IV·SC)은 독일에서 7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 출시로 독일에서 항체 바이오 의약품 명가로서 본격적인 위상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가 일본 오사카에서 팝업 행사를 전개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루나’ 오사카 팝업 개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오는 12월 3일까지 일본 대표 뷰티 편집숍 ‘옛코스메’ 오사카점에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루나는 ‘메이크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오늘의 나를 완성한다’라는 브랜드 세계관을 담아 체험형 공간을 꾸렸다. ‘한번의 터치로 완성하는 프로 메이크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 설명이다.

애경산업은 행사장 내 ‘테스트존’에서는 루나 브랜드 대표 제품인 블러 커버 쿠션과 롱래스팅 팁 컨실러 등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루나 글래스 레이어 틴트’와 함께 본인에게 어울리는 립 제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루나 브랜드 모델인 르세라핌 사쿠라의 직필 사인이 담긴 제품을 15배 확대한 ‘빅 데미 포토존’, 현장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존’ 등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 일본 현지 프로그램으로, 애경산업은 향후에도 2030 일본 여성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바이오팜, 뇌전증 환자 맞춤형 치료 모색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6~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024 미국 뇌전증학회(AES) 연례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9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SK라이프사이언스가 12월 6일 저녁 6시에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 연구를 통한 발작 치료 우선 순위 설정’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발작이 환자 치료 여정에 미치는 영향과

발작완전소실(Seizure Free)에 대한 미충족 수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보슬러(워싱턴대학교 메디컬 벨리 뇌전증 센터 신경과 교수) ▲다니엘 베커(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웨스턴 의료센터 신경과 부교수, 뇌전증 디렉터) ▲모하마드 쿠베이시(조지워싱턴대학교 뇌전증 센터 교수, 신경과 디렉터) 등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피부 장벽 개선 혁신 선도

LG생활건강은 손상 피부 회복 성분 ‘알지닌 글루타메이트’의 효능·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피마슈틱스 10월호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이 개발한 ‘알지닌 글루타메이트’는 피부 표피층의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아미노산인 ‘알지닌’과 ‘글루타믹에씨드’를 이온 결합해 피부 흡수력을 강화시킨 공용 혼합 소재다.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과 국내 최고 화상치료 전문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화상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에서 알지닌 글루타메이트를 함유한 제형을 사용한 후 화상 부위의 수분량, 피부 장벽, 피부 가려움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알지닌 글루타메이트가 환자 피부의 건조함과 가려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만족도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알지닌 글루타메이트가 화상 환자의 피부 회복을 향상하는 효능·효과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INTELLIGENTLY CONNECT

인공지능에서 연결지능으로

단순히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X로 고객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유플러스는
사람과 기술을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당신에게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부터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유플러스만의 AX 혁신은 계속됩니다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ixiO

ixi-GEN





하나금융그룹,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 성료

하나금융그룹이 2024년 하나 웨이브스(WAV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는 지난 2021년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된 4기 직원 22명을 더해 총 120명의 직원이 '하나 웨이브스'를 수료했다. 함영주 회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유타일유, 김장 나눔 봉사활동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유타일유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겨울맞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패트리스 드베미 대표를 비롯한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유타일유 임직원들이 에코생활협동조합 봉사자들과 함께 유기농 재료로 약 700kg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고 포장했다. /에쓰오일



애경케미칼, 지역사회 김장김치 후원 등 나눔 실천

애경케미칼은 사회공헌이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매년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매년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활동을 해왔으며, 생활용품 지원, 돌봄 인력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김장김치 후원 등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애경케미칼

산업인력공단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소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연간 90만명의 국가자격 수험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주는 가치드림서비스 운영 ▲중소기업·지역주민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광동제약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대상

광동제약이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광동제약은 3개 영역, 25개 지표에 따른 정량·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식·컨퍼런스

SW·ICT총연합회, 'ACx' 기반 미래 방향성 제시

(인공지능전환)

김인현·박윤지 대표 대상
조풍연 회장 "기술 발굴 총력"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에서 제품(기술·서비스)부문 대상에 디지털전환 컨설팅업체인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가, 초월 인재 부문에선 클라이온의 박윤지 대표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SW·ICT)총연합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를 열고 SW·ICT분야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들에 대한 시상식과 기술교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SW·ICT총연합회, 메트로경제신문 및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됐다.

이날 시상 및 컨퍼런스에서는 제품부문에 투이컨설팅, 인재부문에 박윤지 대표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13명의 기업체·기업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초월 제품부문에서는 혁신상에 고열전도성 IMS를 개발한 매그나텍 박선후대표, 복지서비스 조사시스템을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기업 및 협단체장들이 디지털 초월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

개발한 디아이정보기술의 우동영 대표, TCMS를 개발한 와이즈와이어즈의 조경희 대표, 스트림Docs를 개발한 이파피루스의 김정희 대표, 화이트디펜더를 개발한 에비리온 홍승균 대표, KEENEAT를 개발한 칠로엔의 조성인 대표, 라온 K업로드 2018을 개발한 라온위즈의 류충희대표가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초월 제품부문 도전상에는 닥터아몬드를 개발한 아몬드의 나윤후 대표가 상을 받았다. 초월 인재부문에서는 박윤지 클라이온 대표가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혁신상에 틸드코리아 백성주 대

표, 가덕씨앤에스의 서배선 대표가 상을 받았으며 소프트보울의 이태규 대표가 도전상을 받았다.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인공지능전환(ACx)을 주제로 한 '디 에지 오브 ACx: AI,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공전략'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I) 황종성 원장이 'AI 전환 시대 정부 혁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열여덟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장은 "현재 SW 및 ICT 분야의 조달쇼핑몰 등록 및 우수조달품, GS, CC, CSAP 등 각종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2만개를 넘고, 2022년 수출금액도 208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이들 기업이 전문화된 일자리와 풀뿌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려면 ACx분야의 R&D 예산 40조원, 공공·민간 판로 20조원을 열어야 한다"며 디지털 초월대상을 통해 SW와 ICT 기술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metroseoul.co.kr

LG전자

'서비스 올림픽' 성료

세계 각국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수리·상담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겨루는 '서비스 올림픽'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6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2024 서비스 올림픽 '에 총 1400여명이 참가했다.

서비스 매니저들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PC·모니터, 소형가전, 가전케어(세척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르고 정확한 수리 및 케어 실력을 겨뤘다. 아울러 고객상담, 고객응대 등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뽐냈다. /구남영 기자

부음

▲도윤흥씨 별세, 도건필, 도연희, 도유경, 도유라 부친상, 이상규(나노캠텍, 한일오닉스 회장) 빙부상 = 11월 26일,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02) 2290-9442.

▲도윤흥씨 별세, 이상규(나노캠텍·한일오닉스 회장)씨 빙부상 = 27일, 한양대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02-2290-9442

▲김대열(전라북도체육회 (전)상임부회장)씨 별세, 본인상 = 26일 오전, 전북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063-250-2441

▲홍성은(주)디블렌트 대표)씨 별세, 홍은표 손희현씨 자녀상, 홍성해씨 형님상=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02-3410-3151.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024년 하반기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25~26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상장심사 효율화 방안 및 성과,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은보 이사장(앞줄 가운데) 등 회원사 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삼성, 충북에 12번째 '희망디딤돌' 새겼다

충북센터 개소식... 100여명 참석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12번째 '삼성희망디딤돌'이 새 문을 열었다.

삼성은 26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충북센터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송재봉 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자립 생활관 15실, 자립 체험관 5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전경. /삼성전자

을 갖췄다. 충북센터 운영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만간 종료되는 만 15~18세 청소년들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준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15곳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인천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슴별곡



김준형의
청명곡니

인도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다. 인도의 어느 숲에는 황금 사슴과 그가 거느린 오백여 마리의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왕이 사슴 고기를 너무 좋아 해서, 날마다 사슴을 사냥했다. 사슴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황금 사슴은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냥을 그만 두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매일 한 마리씩 목숨을 내 놓겠소.'라고 제안했다. 왕은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를 밴 어미 사슴에게 순서가 돌아왔다. 황금 사슴은 자신이 어미 사슴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 놓겠다고 나섰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사슴들에게 '더 이상 사슴고기를 먹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하이난 섬에도 사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이 멋진 사슴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사냥꾼의 끈질긴 추적이 이어진 끝에, 사슴은 남쪽 끝의 절벽에 다다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사슴은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

다. 그런데 사슴의 눈망울이 너무나도 맑고 애처로웠다. 차마 쏠 수 없었던 사냥꾼이 활을 내려놓자, 사슴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사실 사슴은 무척 친근한 동물이다.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이라는 명칭도 '신선이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이라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나라공원에는 1000마리가 넘는 꽃사슴들이 살고 있다. '타케미카즈치'라는 군신(軍神)이 사슴을 타고 나타났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사슴을 보호해 왔다고 한다. 도교의 십장생의 하나가 사슴이고,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사슴의 수호자였다. 사슴을 자신의 시조로 생각하는 민족도 있다. 게르만족과 켈트족은 수사슴을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했고, 몽골족도 자신들이 푸른 이리와 흰 사슴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스키타이족도 사슴과 깊은 인연이 있다. 사실 스키타이라는 말의 어원도 '사슴'이다. 스키타이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사슴뿔 모양의 관을 썼다. 이런 풍습은 신라의 금관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사슴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마도 뿔 때문일 것이다. 사슴의 뿔은 정기적으로 재생된다. 그래서 사슴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최근 수원에서 주민 2명이 사슴에게 공격당했다. 부랴부랴 수원시가 나서서, 간신히 사슴을 포획했는데, 이번에는 의왕, 군산, 순천에서 사슴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사슴뿔에 쥘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다.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이때 수사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슴들은 사슴농장에서 탈출한 사슴들이 번식을 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사슴이 절대 만만한 동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슴농장을 관리하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슴이 인간세계를 침범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사슴이 살 곳을 빼앗아 버린 것인지는 아리송하기만 하다.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자연을 지배해 왔다. 어쩌면 이번 사슴사건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대자연의 경고는 아닐까?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한때의 주춤이 영원한 멈춤은 아니다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차전지는 모든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다. 전기차와의 시너지 효과로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 평가받았으며 업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뭇 다르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때 배터리사들은 대거 투자를 늘렸으나 현재 캐즘(수요 정체)의 충격 여파를 크게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전기차 화재 사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차전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항만 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이나 산업도 모두 위기의 순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곧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됐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가 겉보기엔 정체 상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다. 우리는 이차전지가 단순히 '잘 나가던 산업에서 위기를 맞았다'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차전지는 단지 전기차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그 이상을 넘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여전히 글로벌 선두를 지키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이 경쟁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재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차전지의 가치까지 폄하될 수는 없다.

산업은 늘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닦아가며 내일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게 된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기업의 성과나 몇몇 문제에 주목하며 업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차전지가 환경과 사회를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당장은 길 위에서 흔들릴지라도, 끝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설계도를 선물할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48년생 여행은 고생. 6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72년생 오늘은 한 가지 일에만 신경을 쓰자. 84년생 손님도 많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따르니 행복한 날.
- 소** 37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 49년생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도전. 6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니 도둑 수가 따른다. 73년생 비상금이 있어서 행복. 85년생 늦게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같듯이 시작.
- 호랑이** 38년생 함께하는 동업자에게 먼저 양보를. 50년생 급여가 적어도 불평보다는 미래를 발전시켜라. 62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74년생 준비해둔 이사계획은 순조롭게 된다. 86년생 투자한 만큼 이익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 토끼** 39년생 취미생활로 인해 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51년생 인생은 양보하며 사는 것. 6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5년생 오랜 봉사가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니 감사. 87년생 공민인 만큼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게 되니.
- 말** 4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52년생 개성의 시대라지만 일할 자세를 갖추어라. 64년생 오후에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6년생 명예를 높이려다 실속도 놓치게 되니 아차 싶다. 88년생 이직은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
- 뱀** 41년생 능력은 부족해도 신용으로 극복하도록. 53년생 바람이 불어도 신념은 흔들리지 않도록. 65년생 산소 이장문제로 가족들과의 불화를 조심. 77년생 능력이 넘쳐도 속전속결보다는 재검토가 필요. 89년생 금전대차 관계에서 현명하게.
- 말** 42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54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하는 것은 평소 쌓아놓은 대단한 능력. 6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신용. 78년생 답답하면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라. 90년생 선택한 일에 대해 신념을 갖자.
- 양** 43년생 남보다 일의 양이 많다고 자신의 운명. 55년생 능력이 부족하면 성실성이라도 보여라. 67년생 계층을 떨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79년생 집안에서 곱돌기만 하지 말고 화합해보자. 9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의 진척이 많아진다.
- 원숭이** 44년생 이제 도박성 투자가 웬 말인가. 56년생 주경야독은 언제든 좋은 결과가 있다. 68년생 부나 권력으로 표준으로 삼는 시대이니. 80년생 약육강식(弱肉強食)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92년생 싸우지만 말고 문제해결을 찾아라.
- 닭** 45년생 일보다 마음이 앞서지만 분석을. 57년생 운전할 때 부산은 금물. 69년생 지는 일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라. 81년생 식구에 관한 관심은 재물증식과 자녀발전에 도움이 된다. 93년생 종이 짚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짚이 떠날 수는 없다.
- 개** 46년생 환경이 좋게 변화. 58년생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70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아쉽게도 사상누각. 82년생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면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94년생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것이다.
- 돼지** 47년생 사돈계 보증을 부탁하지 말 것. 59년생 바쁜 하루에도 일의 성과로 보람을 얻는다. 71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도 너무 믿지도 마라. 83년생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95년생 급여가 적어져도 이직의 운은 없으니.



김상회의四季 스트레스 대처법 ②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불행한 감정의 시발점인 것은 많은 현인이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두세 개 정도의 같은 성씨로 구락을 이루어 살던 근근대적 시대에는 일평생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촌에 팔촌이 대부분인 지라 집마다 손가락 숫자도 꿰고 있던 시대이니 서로 사는 게 뻘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보여주기 일상이다. 여행지의 풍경과 명품 가방 팬시한 옷차림과 레스토랑의 음식들 사진 등 각자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경쟁하듯 올려놓는다. 내가 오늘 점심 뭘 먹었는 지까지도 생판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좋아요'를 누르는 시대가 반드시 행복을 담보할까. 내가 얼마나 팬시하고 럭셔리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망상 중에도 이런 망상이 없어 보인다.

자기 PR도 중요한 시대기는 하나 헛헛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같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에너지 있는 일상을 살아가려는데 웬 부정적인 생각이냐고? 그렇게 못 누리는 사람들의 뉘그러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다. 비례하여 스트레스 지수 역시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명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의 사주가 있다. 우선 신약 사주가 그러하다. 태어난 날과 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데, 나를 돕거나 생해 주는 오행이 빠져 있을 때 신약사주라고 판명한다. 신강사주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골골 체질이라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감기도 자주 걸리는 편이고 피로감도 높다. 같은 일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러니 자신의 특성을 살펴서 평상시 몸 관리에도 참고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할인도서

6	9	8	7	2	9	1	2	8
9	8	2	1	6	8	7	9	
7	1	2	8	9	8	6	2	9
2	9	9	1	6	8	2	8	7
1	7	8	9	2	9	2	6	8
8	2	6	8	7	2	9	9	1
2	7	9	9	1	8	8	6	6
8	6	9	2	8	7	9	1	2
9	8	1	6	8	2	7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3高에 지친 소상공인 돕는다... 내년 5356억 투입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중·저신용자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로 애로 해소

서울시가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한다. 또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간편결제시 서울페이 표준 규약(QR)을 사용토록 민간과 협력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서 좋은 시절이 오나 했더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가 발목을 잡고 엮힌 데 댄친 격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 경제의 싹틔움이자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짐과 고민을 서울시가 조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나마 덜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 5356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 보탬 프

젝트'는 자금 보탬, 매출 보탬, 공정 보탬, 새길 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줄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35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한다.

시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 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줄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덜 계획이다. 시는 수수료가 1~2%로 낮은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가맹점을 늘리는 동시에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처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힐 방침이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쓸 수 있었던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꾸주는 '동행 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5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도 서울사랑상품권을 2948억원어치 발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결제 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알리·라인페이 등 간편결제사에서 서울페이 결제 QR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 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매입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본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시는 강조했다.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걸어나갈 새길에 힘을 신기 위해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전문가를 붙여 행정 절차 안내, 폐업 소요 비용 지원 등의 도움을 준다. 폐업 후 직장을 구하길 원하는 이들에겐 취업 상담과 함께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서울일자리센터, 서울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행해 소상공인 사업체 9만 7385개, 전통시장 185개를 대대적으로 지원, 연간 2조 1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공대학, 내년 9월부터 계약학과 운영 가능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예술·미용 등 특화분야 강화 기대감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전문대학처럼 기업들과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은 물론 산학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산학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이다. 현재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 3곳이 있다. 이들은 그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르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우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

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일반 대학은 지난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파주시, GTX-A 개통 발맞춰 버스노선 개편

내달 1일, 3개 신규노선 신설

파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에 발맞춰 버스 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GTX 운영중양역과 주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GTX 운영중양역까지의 도착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12월 1일부터 신설되는 3개의 신규노선은 심학산로 개통 전까지 임시노선으로 운행된다.

▲070A/B 노선: 경의중앙선 운영역을 기점으로 신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으

로, 시계방향과 역방향 각각 6대씩 투입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자정까지 운행된다.

▲072번 노선: 금촌역에서 출발해 파주병원과 금릉역을 거쳐 GTX 운영중양역으로 연결된다. 6대가 투입되며,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80번 노선: 운영신도시와 대화역을 연결하며, 주요 지역인 초롱꽃마을과 해솔마을을 경유해 GTX 운영중양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총 7대가 출퇴근 시간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1시에 교하차고지에서 출발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도입

오는 30일부터 가능... 이용범위도 확대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사용이 가능하고, 고양·과천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의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동카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총 8개사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IBK기업)는 추후 출시할 계획이다.

사용 구간은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서울 지역 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확대된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을 비롯해 이달 30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부터는 고양·과천 구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후불 기동카는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4 | 해질 / 17:15

11월

27일(수)

음력 : 10월 27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3

동두천 -3/3

가평 -2/2

파주 -3/3

서울 1/3

양평 -1/3

인천 2/5

수원 3/4

용인 3/4

평택 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특검,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 /사진 뉴스스
- ▲美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겨냥... "전기차 보조금 우리가 주겠다"

- ▲일 정부 "이쿠이나 정무관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 매우 유감"
- ▲우크라, '중진 추진' 트럼프에 자원 등 경제적 이익 앞세운 호소



-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 열고 휴전 안 승인 여부 결정 /사진 뉴스스
- ▲머스크 "F-35 비싸고 조종사만 죽여... 공군 전력 드론 전환 추진할 때"



굴 생산량 급감에
유통업체
물량확보 총력전
L1



Life

위스키업계
픽업·프리오더로
시장판도 바꾼다
L2



“유저와의 소통이 ‘해답’... 게임 넘어 문화로 만들어가야”

속깊은 인터뷰

한재영 스마일게이트 이사

MMORPG ‘로드나인’ 프로젝트 퍼블리싱 총괄
동시 접속자 수 20만명 돌파... 출시 후 인기 꾸준
파밍·성장 시스템 강점으로 클래식한 재미 선사

“로드나인을 통해 ‘클래식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로드나인 프로젝트 퍼블리싱 담당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메가포트부문 한재영 이사의 말이다.

올클래스 MMORPG를 표방한 ‘로드나인’은 지난 7월 출시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엔엑스쓰리게임즈가 개발한 로드나인은 지난 7월 12일 출시 후 6일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이다.

로드나인은 9가지 무기 마스터리와 70여 종의 직업을 제공하며, MMORPG의 핵심 요소인 ‘파밍’과 ‘성장’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공식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용자 소통도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규 월드 ‘라디언트’를 오픈하며 콘텐츠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로드나인’ 프로젝트 퍼블리싱을 총괄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메가포트부문 한재영 이사를 만나 로드나인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스마일게이트에 합류한 한재영 이사는 ‘로드나인’이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 스마일게이트의 도전정신을 꼽았다.

한 이사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게임 회사.’ 입사 전 제가 그랬던 스마일게이트의 이미지다. 실제로 그랬다. 많은 게임사들이 유저와의 소통을 필두로 게임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가 이에 부응하는 회사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스마일게이트는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로드나인 성공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로드나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 이사는 “클래식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MMORPG 기 때문”이라며 “로스트아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에서 ‘로드나인’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처음에는 망설여지긴 했다. 하지만 로드나인을 처음 봤을 때, ‘게임을 개발한 기획 PD가 시장에 새로운 재미를 선보이고 싶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르 내 게임별 큰 차별점이 없다는 것을 꼬집으며 “뻔한 스토리와 예측가능한 스토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게임을 빠르게 손을 털 수 있는 이유라면, 로드나인은 이를 넘어 설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예상을 벗어난 재미와 새로운 가치 등을 전달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로드나인을 ‘클래식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MMORPG라고 말했다.

그는 “유저가 게임에 재미를 느껴서 시간을 쓴 만큼 결과는 정직하게 나온다. 유저들이 스마일게이트와 로스트아크에 준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이고 싶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메가포트 부문 퍼블리싱사업 2실담당 한재영 이사

/스마일게이트

에 로드나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싶다”며 목표를 제시했다.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로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로드나인은 실제 2024 유니티 어워즈 게임 부문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골든 큐브’에 후보로 올랐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다. 이는 ‘로드나인’이 게임 플레이어의 완성도 및 유저 참여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 대상에서 ‘우수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

로드나인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서비스 시작 뒤 6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1위에 올랐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20만명을 돌파, 40일 만에 매출 3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과금 부담 줄이고 본연의 재미 집중 ‘흥행 비결’ 유저와 소통 중점... 함께 즐기는 콘텐츠 선배 플레이 스타일·재미 맞춰 글로벌 서비스 준비

이같은 로드나인의 흥행에 대해 한 이사는 “과금 부담을 현격하게 줄이고 MMORPG가 갖춰야 하는 본연의 재미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또 앞서 스마일게이트만의 소통방식과 유저들과의 호흡이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고 흥행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게임 개발 총괄인 김효재 PD는 유튜브 공식 채널의 콘텐츠에 출연해 ‘로드나인’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의 평소 궁금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줬다.

이처럼 유저와의 소통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이사는 언급했다.

그는 “안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유저들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저들이 함께 협력해 몬스터를 잡는 PvE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유저간 경쟁을 할 수



로드나인 대표이미지.

있는 월드 콘텐츠도 연내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상품을 넘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신념 아래 ‘유저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게임을 만들자’는 기조를 초반부터 세웠고, 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차근차근 선보이고 있다. 연말에는 유저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도 기획 중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로드나인 오픈과 동시에 유저와의 소통 방송 ‘로드톡’을 진행한 바 있고 지난 9월 한 이사가 직접 전문 방송인, PD와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방송 ‘로드나인’에 참여했다.

이에 한 이사는 “앞서 유저들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 유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진출에 대한 방향성도 설명했다.

한 이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글로벌 유저들은 게임 성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이에 맞춰 플레이 과정에서 유저가 받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여러 요소를 바꾸고 있다. 해외 유저들이 우리나라 MMORPG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플레이 스타일이나 재미의 결을 맞춰 서비스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허정무,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도전장 /사진 뉴시스
▲허정무 “박지성·이영표 축구협회로 불러야...들러리 아닌 책임 있는 역할 맡겨야”

▲김민재, 이강인과 경기 앞두고 경기력 ‘부쩍’...수비진 중 최고 평점
▲김하성,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합류 가능성...‘절친’ 이정후와 한 팀 될까



▲여자배구 IBK기업은행, 5연승 거머쥐며 ‘기세’...2등까지 ‘1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유력...후보 등록 의사 서류 제출 /사진 뉴시스